

제 10 강 굶주린 자들을 위한 구원 (왕하 6:24~7:20)

I. 포위당한 사마리아가 굶주리다(6:24~7:2)

1. 포위된 사마리아(6:24~29): 아람 왕 벤하닷의 두 번째 포위(24, 참조. 왕상20:1)

- 1) 극심한 인플레(25): 나귀머리 은 80세겔(노예 30세겔), 비둘기 톱 0.3리터 은 5세겔.
- 2) 극심한 굶주림(28,29): 한 여인의 외침. 이 여인이 내 아들은 삶아먹고, 자기 아들은 숨김

2. 왕의 반응(27,30,31): 무기력(27), 극도의 슬픔(30), 엘리사에게 분노 퍼부음(31,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끔찍한 결과 주어짐. 엘리사에게 책임전가)

3. 엘리사의 반응(32~7:2)

- 1) 선행조치(32): 예언적 통찰력으로 벌어질 사건 미리 인식하고, 문을 닫아 암살자를 막음
- 2) 왕의 메시지(33):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음.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?
- 3) 엘리사의 예언(7:1,2): 기다릴 필요 없음. 구원이 임박
 - a. 예언 1(1): 내일 이 맘 때 인플레 해소. 밀가루 한 스아, 보리 두 스아(7.7리터) 1 세겔
 - b. 예언 2(2): 믿지 못하는 왕의 장관, “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.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.”

II. 사마리아가 다시 구원되다(7:3~20): 낮은 자들을 통한 구원

1. 나병환자 네 사람이 해 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갔다 아람의 퇴각 사실을 처음 확인(3~5)

2. 하나님께서 홀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심(6~7)

- 1)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'소리'와 말 '소리'와 위대한 군대의 '소리'를 듣게 하심
- 2) 아람 사람의 곡해: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 오게 하였음
- 3) 아람 사람들 해 질 무렵에 모든 것을 진영에 그대로 두고 도망

3. 사마리아 사람들의 굶주림이 해소되어짐(9~16a)

- 1) 나병환자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림(9~11)
- 2) 왕의 의심(12): 아람 군대 진영을 떠나 매복. 우리를 성읍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함정?
- 3) 신하 한 사람의 조언(13~15): 짐작 대신, 실제 말과 사람을 보내어 정탐 ⇒ 사실로 확인
- 4) 사마리아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(16a)

4. 예언의 성취(16b~20): 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

- 1) 예언 1의 성취(16b): '여호와의 말씀과 같이' 성읍의 물가가 정상시로 돌아옴
- 2) 예언 2의 성취(17~20):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불신했던 왕의 장관은 백성에게 밝혀 죽음